편집위원 칼럼

진흙탕에서 혼자만 깨끗할 수는 없다

최 진 호
(최진호연구소)

지난 3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육류의 소비가 크게 줄었던 적이 있다. 그 당시에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의 어려움이 어떠했는가는 다시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얼마 후에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파가 팔리지 않아 밭을 갈아 엎는 등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육류소비가 감소하니까 육류와 함께 먹는 파절이의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파 값의 폭락과 함께 파 재배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파를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 가축의 질병 발생이 자신에게 그토록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꿈엔들 생각이나 했을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듯이 그로서는 청천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사이에도 서로가 모르는 가운데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라도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 주변의 어느 누구에게라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싶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무시하면서 살아 갈 수는 없다. 싫든 좋든 주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데도 우리 주변에는 남이야 피해를 입든 말든 나만 이득을 취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우리 양계업계만 해도 그렇다.

최근 저난가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양계 농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란계의 사육 수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육추사료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저난가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사육수수가 감소할 것이고 생산이 줄어들면 계란가격은 다시 오르기 마련이니 남들이 사육수수를 줄일 때 나만 오히려 늘려 두면 계란 가격이 다시 오를 때 크게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있다.

다들 겉으로는 사육수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자기 농장에서는 남 모르게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저난가는 더욱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다 보면 모두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남들이 다 불행한데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다. 새 옷을 입고 진흙탕에 들어가서 옷에 진흙을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진정으로 나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회 전체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되고 이 사회에서 음란물이 난무하고 폭력, 사기행위가 판을 치는데 내 자식만 도덕적으로 바르게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양돈 업계에서는 민간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설립하여 활동해 왔다. 이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어느정도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무렵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구제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에 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더라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을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축산업계 모든 사람들에게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차제에 박멸하고자 하는 대상 질병도 돼지 콜레라 외에 구제역과 오제스키병을 추가할 뿐 아니라 닭의 질병인 뉴캣슬과 가금인플루엔자까지 포함하기로 하고 기구의 명칭도 '가축 위생 방역 지원 본부'로 개칭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양돈분야에서 질병근절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정도 성과가 보일 듯하니까 양계분야까지 끼어 든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양돈이든 양계든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활동을 공동으로 펼쳐 나간다면 축산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질병 박멸 활동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에 모든 축종의 관련단체가 질병퇴치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질병퇴치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서로 협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양계